

## 평가방법이 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구 광 조(단국대학교)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특징을 일언이 폐지하면 일시위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입시라는 거대한 원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인격의 완성이나 자아실현, 개성 또는 능력의 개발신장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회의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나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 또한 그러한 양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법 4조에도 교육의 제도, 시설, 교과와 방법은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피교육자로 하여금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 1 - 3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자녀에게 받게 하는 의무를 후견인에게 과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교육법상의 규정을 볼 수 있다. 즉 기회균등이 개인의 능력차를 무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능력은 물론 지적인 것 뿐만아니라 예술적, 정서적, 신체적, 도덕적 능력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적능력에서는 교과와 영역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교과영역에서도 단순한 기억에 의한 지식뿐 아니라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 평가력 등 다양한 능력 요소가 다양하게 강구됨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의 가치체제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어서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하위 학교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철학이나 원리, 교육과정, 제도, 방법, 평가등의 질서를 무시하여 독단으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학교교육의 목표를 일류대학에 많이 합격시키는데 있다고 세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학습내용과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전인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학교의 방침이나 학부모의 압력, 학부모의 학교불신으로 인한 과외학습등 파행적인 교과운영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입시문제는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류대학 간판에 대한 맹신은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여 균형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입시의 선발기준은 짧은 시간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지식의 측면만에 한정하여 평가되므로 그것에서 오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부정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출제형태와 방법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로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무시하고라도

상황에서 황폐된 수학교육을 회생시킬 수 있겠는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여기서 대학입시의 영향을 받은 학교교육의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기보다 범위를 축소하여 그것이 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 강조된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으로 인하여 1961년에 전국 학력고사에 처음 도입된 사지선다형이 군사문화와 더불어 30여년간 평가제를 지배하여 왔으며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법도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그 생명이 길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형 출제가 대학입시에만 국한되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이는 곧바로 학교교육에 크게 영향되어 학교수업에서의 일반평가에서도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근래에 와서 초·중학교까지 확일화되어가는 또하나의 이유는 컴퓨터의 보편화가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적관리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에서도 이 방법은 버릴 수없는 필요악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수학교육과정을 6차에 걸쳐 개정해 왔는데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개혁에 필수적인 것은 교육목적이나, 내용, 방법뿐만 아니라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제6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평가에는 대략

- 수학학습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교사 자신의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통해서 교수학습의 전후과정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 수학학습평가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 추론능력, 문제해결력, 수학적 성향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 지필검사는 가능하면 선다형 문제를 줄이고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여 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의 결과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또 NCTM의 Standard의 평가에서도 수학과 평가의 목적을

- 학습장면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수업중에 내리는 결정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유용해야 하고,
-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사소통하는 한 방법이며,
- 교육전반 실현과정의 근본으로서 수업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다양하여야 하므로 수학평가에서 지필검사의 한계를 실감해야 하고 평가결과는 정확하고 완전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학습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학습의 모든것과 직결되어 있는 평가가 입시준비교육이라는 영향으로 병들고 있는데 특히 수학교육에서는 선택형 출제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크다.

현재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성적관리의 신속화, 기계화라는 차원에서 컴퓨터 채점을 하고

있어 사지선다형 70%내외, 주관식 30%내외의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학능력시험 공부를 치중하여 지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등에 100% 오지선다형의 평가문제를 사용하고 있다. 선다형 평가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조사한 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에게 조사한 자료

- 주관식보다 사지선다형 문제가 좋다 :  $642/745 = 86\%$
- 사지선다가 좋은 이유로는,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푼 다음 즉시 확인이 되므로 :  $207/614 = 34\%$  모르는 답은 찍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  $383/614 = 62\%$
- 같은 문제라도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면 쉽게 느껴진다 :  $449/649 = 69\%$
- 사지선다형으로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찍어서 맞혀 본 경험이 있다 :  $687/738 = 93\%$  그때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  $128/676 = 19\%$
- 주관식으로 시험본 다음 잘못된 부분을 선생님이 지적해 주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524/695 = 75\%$

#### 중학교 교사에게 조사한 자료

- 사지선다형 70%, 단답식 30%로 출제한다 : 96%
- 사지선다형과 함께 출제하는 주관식이 모두 단답식이다 : 66%
- 1회의 출제문항수는 25문항 : 69%, 20문항 : 24%
- 평가결과가 몇점이상이면 학습목표의 80%이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가?  
60점이상 : 28%, 70점이상 : 17%, 80점이상 : 10%
- 사지선다형 평가가 좋지 않은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86%  
그 이유는 학업성취도를 알 수 없어서 : 55%, 답을 찍는 학생이 있어 부도덕한 행위로 보기 때문 : 34%, 출제가 힘들어서 : 0.4%
- 사지선다형의 개선방법으로는 단답식으로 바꾸고 컴퓨터 채점이 가능하게 한다 : 41%, 완전 주관식으로 : 45%
- 사지선다형 평가방법을 없애기 위하여는, 입시방법을 주관식으로 바꾼다 : 55%, 교사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 24%, 컴퓨터 채점을 하지 않고 컴퓨터는 성적관리나 정리에만 사용 : 14%

이상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학교의 대부분의 학생이 선택형 문제를 좋아하고 있으나 학생 75%, 교사 86%가 이 방법의 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볼 때 선택형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단지 대학입시 준비교육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여기서 수학과 입장에서 선택형으로 평가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장점으로는

- 문항형식이 갖는 융통성이 커서 문항을 조금만 변형하면 추리력, 판단력등을 물을 수도 있다.
- 채점이 쉽고 직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 문항의 답지를 조금만 수정해도 원하는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다른 선택형에 비하여 추측의 요인을 적게 하려면 답지를 4-5지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 같은 시간에 많은 평가내용을 출제할 수 있다.

#### 단점으로는

- 문항 제작이 어렵다.
- 단순한 지식, 기억, 정보의 확인을 위한 지식위주의 문항을 양산하는 결함이 있다.

- 학생이 문제에 반응할 때 불필요한 시간, 노력이 요구되고 제시된 오답이 순사고를 하는데 방해물 함으로서 평가 목적이외의 요인이 작용된다.
-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불리하고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고등 정신기능보다도 단순, 단편적 지식을 가진 학생이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 학생에게 답이 있는 문제를 제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순사고에 의하여 문제해결과정을 밟아갈 수 없고 있는 답을 찾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기능을 요구하게 한다.
- 100%의 학생이 답을 고르다가 모르면 25%의 가능성으로 정답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입장에서 평가결과를 보고도 평가목표의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 학생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 정답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운을 기대하게 함으로서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게 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답을 틀리고도 자기 반성에 앞서 재수없음을 한탄하거나 남에게 이유를 전가하는 나쁜 습성을 갖게한다. 결국 수단이나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한국병의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
- 교사가 논술형을 채점하는 동안 답안지를 통하여 부단히 학생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교사,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는 것을 기계로 채점하여 점수만 알므로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와 더불어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입시준비교육에서 오는 병폐를 살펴본다.

- 선택형만의 출제가 수학과와 모든 학습지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학능력시험이나 종래 대학입시에서 선택형문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각급학교에 파급되고 있고 컴퓨터 채점이나 관리때문에 더욱 확산되면서 선택형 문제가 갖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학습지도 전반에 걸쳐 수학교육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 수학교육의 목적이 중심을 잃고 있다.  
입시준비교육은 수학교육의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수학문제 해결에서 신속성, 정확성, 원칙을 무시한 결과추구식, 고르기 기능등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수학교육의 목표에서 중시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종합적인 문제해결력 나아가 창의력, 평가력등의 고등 정신기능을 도외시하게 된다. 결국, 지엽적이거나 거의 불필요한 단편적 지식이나 기능이 강화되고 정당한 방법으로의 접근보다 편법을 선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서 입시에 좋은 점수를 따는데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전혀 쓸모없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시간과 정력과 금전을 낭비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만 끝나고 결과(점수)만 나오면 깨끗이 잊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는다면 한탕주의, 기회주의,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면 된다는 비뚤어진 가치관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상위권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편파되어 있다.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등이 전국에서 같은 문제로 동시에 실시됨으로서 전국의 모든 입시대기생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출제하여 상위에서 하위까지 일렬로 그 능력을 나열하게 된다. 따라서 그 출제문제는 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위권 분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93년 전기대 입시결과의 분석을 평한 모일간지에는 꿈의 점수로 불리우는 300점이상의 학생이 전체의 5%인 3만명이고 그들 가운데서도 입학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속출하여 부정적이라고 보면서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평가한 것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입시교육에서도 모든 학생이 똑같이 300점이상을 겨냥하고 학습하다가 성공하면 다행(5%이내)이지만 여의치 못하

면 고배라도 마셔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입시준비교육이나 학원교육, 개인과의, 각종 참고서등에서 수학과 학습지도의 수준을 상위권에 맞추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과 같은 것이다. 학습지도에서 학생의 능력차가 있다고 전제할 경우 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실제로 학습의 수업에서도 상위 5 - 10%에 올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수업하는 사례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다수 학생이 희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를 누가 보상하겠으며, 그런 상황에서 교육 과정, 교과서는 아무 구실도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흡사 모든 학생을 100m 선수로 만들려다가 대부분 학생의 건강한 다리를 못쓰게 부셔놓는 꼴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게 함으로서 모든 문제를 속단하게 된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이상을 준비한 실력을 단 하루만에 발휘하여 생과 사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험제도에서 길러진 태도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사고하여 해결하는 문제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서 길러지는 지식이 단편적인 동시에 속단, 속결적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 국제화시대의 수학교육의 발전을 좌절시키고 있다.

1900년대 이후 수학교육은 학문체계에 있는 수학을 실용의 세계로 끌어들이며 현대과학기술의 필요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었으며 수학교육의 현대화를 통하여 인간형성에 필수적인 창의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 신장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컴퓨터시대와 더불어 수학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수학교육은 미래사회를 지향하여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입시준비교육의 강력한 작용이 수학교육에 썩워진 명에는, 국제화에 눈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눈앞에 닥친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공존해야 할 세계적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서 수학교육의 본질이나 근본을 훼손시키고 있다. 여러가지 국제적인 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단편적인 지식은 우위를 차지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해결력에서는 열등하다는 결과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지선다형 문제로 풀때 답을 모른다고 아무거나 찍지않고 그냥 두고 나오는 어리석은 학생이 어디 있느냐하는 것과 같은 가치관으로 쉽게 판단된다.

- 학교교육을 밖으로 끌어내어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고 있어 학교의 존재의미를 퇴조시키고 있다

교육 본연의 제자리 찾기와 입시의 압력사이에서 갈등을 겪고있는 학교 현실을 불신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 밖으로 나가 학원이나 개인교습, 학습지에 의한 교육에 매달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다인구 학습에서는 입시의 요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성적관리권을 쥐고 군림하는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면서도라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현실을 무엇이라고 변명하겠는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교사가 막중한 사명을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의 장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려는 공교육기관을 도와주는 커녕 등을 돌리는 학부모, 사회적 제도가 어찌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있겠는가?

학교밖의 교육은 교육의 역할 분담을 왜 할 수 없느냐는 반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처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으나, 공교육비는 최후진국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를 합친 총교육비는 어느 선진국에 못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삼 느낄 수 있다. 학교밖에서라도 수학교육이 정상화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박정권때 요원의 불길 같이 퍼졌던 국민학교 과외가 중학교 무시협 제비뽑기로 바뀌면서 일시에 소멸했던 기억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밖의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입시와 관련된 접수따기와 돈벌기에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와 더불어 학교밖 교육에서 수학은 항상 그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 수학교육의 큰 영광이기 보다는 수학교육을 황폐시키는 역할이 더 크기때문에 혜택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대학입시에 음악시험을 수학과 똑같이 실시했다고 가정하면 음악교육이 중흥되기 보다는 악보가 난도질되는 등 음악의 본질이 뒤바뀌었을 것이다.

끝으로,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입시나 학교교육에서의 평가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한다.

- 수학적능력시험이나 대학입시출제의 형식을 개혁하여 선택형 문제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수학적능력시험에서 적어도 수리, 탐구만이라도 출제나 채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고려하여 컴퓨터가 OMR카드를 읽어 채점할 수 있는 단답형으로 출제하여 문제군과 답군(오답을 포함한)을 제시하여 답을 임의로 찍지 않고 순사교로 풀게해야 한다.

수학적능력시험의 결과는 대학입학의 자격기준에만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의 수학적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학적능력시험에서 몇%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만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만 사용한다. 대학 본고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적어도 수학은 선택형으로는 출제하지 않는다.

- 학교에서도 수학의 모든 평가에서 절대로 선택형 출제를 하지 않는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교사의 부담이 커져서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교권을 회복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가급적 논술형으로 출제하고 채점과정을 통하여 교사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그 답안지를 학생에게 공개하여 학습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 평가 결과는 문항별 총점수로 점수화하지 말고 문항의 평가 목표에 따라 묶어서 지식, 기능, 문제해결력, 응용력, 종합력등 각각에 대하여 점수화하거나 A,B,C.....등의 등급을 주도록 한다. 다음에 각각에 대한 점수나 총점을 컴퓨터로 처리함으로써 능률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학교나 학교밖의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는 학교에서의 수학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학원 수강을 확대한 조치를 문제삼지 않는다 해도, 학교수업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진도보다 앞서 지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수학의 학습지도를 정상화할 수 있다. 학습진도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 와서는 문제풀이연습이나 하여 선택형 시험이나 보고 좋은 점수나 따면 된다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학교밖 교육이 성행되는 지역에서는 교사가 못따라오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원에 보내야된다고 권유까지 하고 있음을 볼 때 하루빨리 학교의 본연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

입시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중3을 마치기도 전에 입시준비서인 고등학교 대입 참고서를 가르치는 학교밖의 현실을 수학교육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각종 참고서나 문제집은 입시준비라는 구실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수준을 뛰어넘어 난해한 문제를 제멋대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양해야할 과제이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전과정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교육함으로써 수학을 흥미없고 난해한 교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급기야는 '수학 포기'를 자초하게 하고 있다.

- 학생의 능력별 평가가 이루어져서 능력에 따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학생이 신체적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능력이나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만 할 수는 없다. 능력에 맞도록 대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한 크기의 옷을 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입히려는 시도와 같이 모두를 똑같은 대상으로 보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수학교육의 결과가 평가 목표에 따라 평가됨으로서 어떤 측면은 잘되지만 어떤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학습자나 지도자가 공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입학선발이 우수학생 유치라는 목적하에 능률성,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하급학교 수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추호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교과, 적성, 활동등 학생의 학습활동의 평가가 나왔을때 그것을 토대로 대학자율로 선발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고 교육부나 사회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어떻게 선발하더라도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은 솔선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백보양보하여 학생선발을 해야하고, 각급학교 교사나 학생, 학부모는 여론에 움직이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대학의 눈치도 보지 말고, 교육과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서 교육의 성과는 빛날 것이고 따라서 새한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한다.